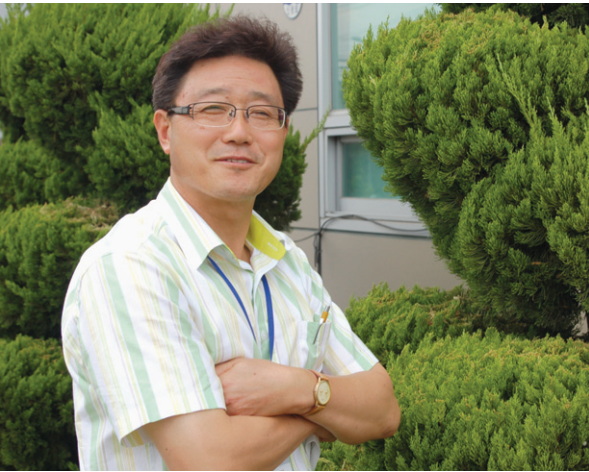



안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행복 재테크입니다.



주식회사 창신Inc.
CSI 주식회사 창신Inc. **백 승 만** 부장

부산으로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싣고 창밖 풍경을 바라본다. 가을로 접어든 계절,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한다. 질푸른 가을 하늘은 높다랗게 솟아있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에 들녘은 벌써 노랗게 물들어 있다.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속도만큼 '획획' 뒤로 사라지는 풍경들, 예전 어릴 적 장난감 카메라를 쳐다보는 느낌이랄까. "딸각"하는 소리와 함께 바뀌는 사진들처럼 가지각색의 모습들은 오랜 지루함으로부터 나를 깨운다.

부산 신평동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창신Inc.는 세계적 신발 메이커인 나이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신발제조 회사이다. 이곳의 안전 파수꾼 백승만 부장, 부드러운 미소에 구수한 사투리로 반갑게 나를 맞아준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그가 안전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여 년 전, 첫 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입사하면서부터라고 한다. 1982년 신발을 제조하던 공장에서 안전은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그 의미는 미비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생산제일주의 방침에 근로자들의 안전은 운에 맡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밤낮을 일해야 했다. 그렇게 그곳에서 10년을 근무한 후, 1992년 이곳에 안전관리자로 입사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1990년대 초 정부차원에서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과 더불어 안전업무를 보는 안전관리자의 입지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생산과 품질 위주의 기업경영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한 여건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 회사 경영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을 설득시켜야 했고,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하는 과제와 외로운 싸움을 해야 했다. 현장에서는 밀려오는 주문에 납기를 맞추기 위해 오직 생산에만 열중했고 작업통로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기와 재봉틀은 어지럽게 돌아갔다. 이에 그는 5S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정리정돈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했지만 처음에는 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과 생산을 책임지고 있던 부서장들과 말다툼은 그를 지치게 했다. 당시 그는 근로자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 말없이 지저분한 작업대를 정리하거나 작업통로 정돈을 하는 한편, 근로자들과 수시로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자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 건수는 줄어들었다. "안전업무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강압적인 방법은 일시적이지만 마음을 열게 하여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자율안전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안전을 하면서 갖는 보람입니다." 이제 안전은 기업의 최 우위 경쟁력이며 나아가 그 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만이 세계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명제가 시대의 흐름임을 잊지 않기를 그는 당부한다. 

〈임재근 기자〉